

제 4 부

하느님의 무조건적 사랑

스물 넷: 하느님의 무조건적 사랑

아래 주어진 성서구절의 도움으로, 하느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받아들일 수 있는 은총을 청하십시오.

- * 시편 104 (창조주를 찬양하십시오)
- * 시편 96 (하느님의 선물에 기뻐하십시오)
- * 이사야 49:15-16 (하느님의 끊임없는 사랑)
- * 요한 3:1-16 (하느님께서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습니다)
- * 요한 13:31-35 (새 계명)

영적성장은 우리가 하느님의 사랑에 더욱 더 마음을 비어 놓는데 있습니다. 하느님께서서는 끊임없고 무조건적인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십니다. 우리는 단지 그 사랑을 받기 위하여 "거기에 있기"만 하면 됩니다. 이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은 우리 자신의 노력으로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지고, 우리가 초대 받고, 우리를 내맡기는 것입니다.

하느님께서서는 아무런 단서도 붙이지 않고 우리를 항상 그리고 영원히 사랑하십니다. 이는 말하기는 쉽지만 받아들이기는 힘듭니다. 사실 그것은 우리가 대면하는 진리 중에서 받아들이기 가장 힘든 것 중의 하나입니다. "나를? 하느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느님께서 어떻게 나를 사랑하실 수 있는가?--내가 내 자신을 사랑하는지조차도 확실하지 않은데!" 우리는 부적절하며 무가치하다고 느낍니다. 우리는 우리가 사랑을 받을 수 있기 위해서는 지금의 모습과는 달라져야만 한다고 느낍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사랑한다"는 말을 "참고 견디어야 하는 것"으로 축소하여 우리를 위한 하느님의 인격적 사랑을 거리가 멀고도 비인격적인 것으로 대치함으로써 이 진리의 영향을 감소시키려 합니다. 사실 우리 사회에서 우리가 사랑을 체험할 때, 그것은 종종 많은 조건이 붙은 사랑입니다. 옷을 격식에 맞춰 차려 입고, 머리를 이상한 색으로 물들이지 않고, 좋은 차를 가지고있고, 명성이 있는 직업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사랑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어떠한 것도 하느님께는 진실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이고 어떻게 행동하든 혹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든, 하느님께서서는 전적으로 우리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잃을 수도 없고, 회피할 수도 없으며, 숨을 수도 없습니다. 사실 모든 창조물이 하느님 사랑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과 모든 창조물을 하느님의 끊임없는 은총으로 볼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모든 것이 우리를 하느님께로 인도하는 하느님의 은총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종류의 사랑을 자주 체험하지는 않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그러한 사랑을 만나게 될 때, 그것은 두려운 것이 될 수 있습니다. 하느님 사랑의 결과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아마 우리는 하느님의 사랑을 믿도록 우리 자신을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느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도록 허용한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 뿐만 아니라 복음서가 우리의 적이라고 하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포함하여 모든 사람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왜? 예수님의 모범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서는 굶주린 군중에 대하여 측은한 마음을 느끼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먹였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회개에 대하여 설교하셨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상처를 치유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용서에 대하여 설교하셨을 뿐만 아니라 자신을 죽인 사람들을 용서해 주셨습니다--예수님께서서는 당신을 죽인 사람들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그들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혹은 "만일 내가 하느님을 온전히 사랑한다면, 나는 무엇인가를 포기해야 할 것인가? 만일 내가 너무 가까워지면, 하느님께서 나에게 무엇인가를 요구하실 것인가? 나는 조심스럽게 기도하는 것이 좋겠다. 왜냐하면 하느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도록 허용한다면 나에게 무엇인가가 일어날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 자신을 잃고, 우리가 삼켜지고, 사랑에 빠지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하느님의 사랑을 얻기 위해서 기도하며 하느님의 사랑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느님께서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며, 하느님께서서는 이 사랑으로 우리가 녹아 들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은 두려운 것이며 놀라운 것입니다. 우리는 무조건적으로 아이를 사랑하시는 하느님의 사랑을 받아들일 수 있지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느님의 사랑을 받아들일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의심하는 우리 자신과 시간을 보낼 필요가 있습니다. 하느님의 사랑은 그때 드러날 것입니다. 의심하는 우리 자아가 하느님의 은총에 의해서 구원되고 우리에게 대한 하느님의 사랑에 개방되는 것은 그 때일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하느님의 사랑을 느끼지 않을 수 있습니까? 내가 아이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이 사랑을 의심할 수 있습니까? 내가 역경을 대면하는 사람들의 용기와 죽음을 대면하는 사람들의 희망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하느님의 사랑을 의심할 수 있습니까? 내가 바닷가에서

석양이나 어린 사슴과 있는 어미 사슴을 바라보거나 나무를 스치는 미풍의 소리를 들으면서 어떻게 하느님의 사랑을 의심할 수 있습니까?

하느님 속에서 잃고 발견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총입니까! 하루 하루는 하느님께서 우리를 더 가까이 이끄시는 순간들로 찬 은총입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끊임없이 받아들여 살기를 원하십니다. 기도 속에서 우리는 하느님께서 우리를 아신다는 것을 알아차리게 됩니다. 우리는 하느님과 사랑에 빠지고, 하느님의 사랑으로 타오르고, 사랑하는 하느님 속에 녹아 들고, 하느님 속에서 발견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그러한 것을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탕자의 이야기로 생각합니다. 우리는 하느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받아들이고,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에 우리의 마음을 열고, 주저 없이 "예"라고 말할 수 있는 은총을 청해야 합니다.

성찰:

- 1) 하느님의 사랑에 대한 체험이 다른 사람들에 대한 당신의 보살핌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습니까?
- 2) 하느님에 대한 당신의 이미지는 무엇입니까?
- 3) 하느님에 의해 사랑 받는다는 체험이 그 이미지를 변화 시켰습니까?
- 4) 위에 주어진 성서를 사용하여, 하느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활동: 당신이 좋아하는 그림과 책을 당신 둘레에 두시고, 당신의 애완 동물과 함께 혹은 자연 속에서 시간을 보내시고, 사랑과 우정의 발달에 관한 좋은 영화를 보시고, 예수님의 정열적인 사랑 이야기를 읽고, 일조나 낙조를 바라보시고, 사랑의 아름다움과 힘에 당신의 마음을 새롭게 열 어떤 것이든 바라보십시오.

받은 은총: 당신은 하느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받아들이는 은총을 청하였습니다. 어떤 은총을 받았습니까?

성찬을 중심으로 한 그러한 지역 공동체는
사랑과 행위에 있어서

일치의 구체적인 체험을 제공한다.

사실 우리의 각 공동체는

그리스도의 신비체의 한 세포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들이 모인 것이다.

우리의 공통적인 투신,

우리의 공통된 생활 양식,

우리의 어머니로서 마리아에 대한 인식과 사랑이

우리를 함께 묶어준다.

(정관 7 항)

스물 다섯: 영적자유

아래 주어진 성서구절의 도움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하여 자유롭게 될 수 있는 은총을 청하십시오.

- * 시편 139:1-18 (자유를 위하여 창조되었습니다)
- * 로마서 8:14-17 (성령이 우리를 이끄십니다)
- * 루가서 15:11-32 (탕자)
- * 요한 8:31-36 (진리가 여러분을 자유롭게 할 것입니다)

영적자유는 영적성장을 위한 조건이며 영적성장의 열매입니다. 영적자유는 영적생활의 중요한 체험 중 하나입니다. 영적여정의 전과정은 내적자유가 자라는 체험이며 하느님의 현존에 완전히 자신을 개방하는 것입니다. 내적자유는 영적여정의 모든 단계에 있어서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통제를 받고 있거나 확실성하고 안정된 삶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과 체제에 구속을 받는 삶을 사는 사람들은 기도하는데 엄청난 어려움을 갖게 될 것입니다. 두려움이나 노여움에 사로잡힌 사람들이나, 남에게 항상 친절을 베풀어야 하는 사람들, 그리고 인생에 대해 고정된 관념을 지닌 사람들은 피상적인 기도밖에는 하지 못할 것입니다. 내적자유는 통제를 하지도 않고 통제를 당하지 않는 체험입니다. 자신의 원의와 희망에 마음을 열게 될 때 그 사람은 참된 기도로 나아가게 됩니다. 자유는 습관이나 다른 사람의 기대감에 의존하지 않는, 즉 일반적 규범에 따르지 않은 기도를 발전시켜줍니다. 내적자유는 하느님과 깊고 친밀한 관계로 개방하는 것입니다.

"자유"란 말은 매력적이고 흥미롭기까지 합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우리 안에는 자유에 대한 저항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느님과 얼굴을 마주 대하는 것을 주저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자신을 통제하는 것보다 하느님께 우리의 삶을 넘겨드리는 것은 두려운 것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유를 바라지만 동시에 자유에 저항을 합니다. 우리는 종종 의존적이 되는 경우가 가끔 있는데 "이 기도에서 나는 무엇을 얻을 것인가?"라고 물을 때입니다.

또한 우리는 자유가 필요 없는 손쉬운 기도방법을 추구함으로써 내적자유를 모형을 피합니다. "나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모릅니다.....만일 내가 저런 종류의 기도를 하는 것을 배울 수만 있다면....."하고 기도할 때입니다. 자유로우신 하느님께서 자유로운 사람과 관계를 시작하고 발전시켜 나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느님과 끊임없이 대화 속에 머무는 것은 하느님께서 우리보다도 더 우리의 자유를 갈망하신다는 것을 이해하도록 우리를 도와줍니다. 하느님께서 바라시는 것에 우리 자신을 개방하는 것은 더 큰

자유와 평화를 향한 움직임입니다. 영적자유는 우리 자신을 세상과 하느님께 개방하는 것입니다.

자유는 우리가 다른 이들과 함께 있도록 도와주며, 우리의 삶이 봉사에 있다는 것을 알도록 도와줍니다. 자유는 좋은 결정을 내리고, 하느님 사랑의 나라를 건설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줍니다. 자유는 하느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부르시는가에 따라서 또 더 큰 필요성에 따라서 남들에게 봉사하는 방법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합니다. 자유는 기도와 생활을 통합하고 모든 것 안에서 하느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합니다.

따라서 영적 자유란 자기 자신에 얽매임, 생활의 압박, 두려움과 분노에서 오는 무기력 함으로부터의 자유(Freedom from)이며, 하느님께 봉사하고 하느님과 친해지는 생활을 위한 자유(Freedom for)입니다.

그런데 자유에 대해서는 더 많은 말을 할 수도 있고 또 말해야만 합니다. 제 2차 바티칸공의회 이전 수세기 동안 (이 수련 처음에 언급한 바와 같이) 영적자유가 영적성장의 조건이라는 통찰이 종종 상실되기도 하였습니다. 사실, 반대되는 견해가 지배적이었습니다. 느낌들은 의심을 받고 믿을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개인의 영적인 이상(理想)은 교회의 권위에 얼마나 순명하느냐에 의하여 측정되었습니다.

지금도 교회에 순명할 필요가 있으며 또 교회에 순명하는데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응답의 깊이는 순명함으로써 오게 되는 내적자유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됩니다.

내적 자유는 성 이냐시오가 오백년 전에 깨달은 은총으로 보여집니다. 내적자유는 우리의 두려움과 탐닉과 충동을 초월하게 하는 은총이며 하느님과 친숙하고도 사랑하는 관계를 맺은 결과입니다. 영적자유는 모든 창조물에게 마음을 여는 것입니다. 모든 개인적인 장벽과 장애가 극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느님께 개방되고 하느님과 접촉하는 것이 얼마나 매력적인 것입니까!

반면에 영적자유는 그에 따른 결과를 낳습니다. 영적자유는 내가 원하는 것만 갖거나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영적 자유란 종종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받아들이는 내적인 힘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어느 누가 두려움이나 실패로 인하여 파멸되는 은총을 받기를 고대합니까? 아무도 파멸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영적자유는 나의 눈을 하느님께 고정시킴으로써 두려움과 실패가 올 때 그것들을 받아들이고 초월할 수 있을 때 받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불치의 병에 걸렸을 때, 자신의 분노와 절망을 직시함으로써 수용과 평화에 이르게 됩니다. 개인적인 갈등을 넘어 종교적인 소명 마음을 옹호함으로써 신비의 평화와 기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삶에 대한 의심과 환멸을 극복하는 것은 신앙의 기쁨과 성취를 가져다 줍니다.

분명히 영적자유는 대가를 치르고 얻게 됩니다. 영적자유는 갈등에서 옵니다. 밤새 천사를 붙들고 씨름 했던 야곱처럼 우리는 통합성과 충실성을 지니고 삶을 대면한 결과로서 우리의 영적자유를 체험합니다. 우리는 무엇이 거짓인지에 반해서 무엇이 진리인지를 보게 됩니다. 우리는 무엇이 실패할 것인지에 반해서 무엇이 지속될 것인지를 체험합니다. 우리는 하느님의 것을 받아들이고 하느님의 것이 아닌 것은 외면합니다.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마침내 우리는 자유롭다" 하고 점차 외칠 수 있습니다.

성찰:

- 1) 하느님에 대한 당신의 추구가 당신의 내적자유를 깊게 하고 있습니까?
- 2) 자유로워지고자 하는 당신의 원의가 얼마나 강합니까?
- 3) 자유로워지는 것에 대한 당신의 저항은 무엇입니까?
- 4) 위의 성서구절을 사용하여, 예수님의 제자-동반자가 되도록 기도하십시오.

의례 활동: 우리가 하느님과의 관계에서 지니기를 바라는 자유를 표현하는 발레, 춤, 운동, 혹은 다른 활동을 지켜보십시오. 그러한 자유롭고 사랑하는 관계의 은총을 표현하는 당신 자신의 몸짓을 하거나 움직임을 하거나 혹은 춤을 추십시오.

받은 은총: 하느님께서 어떻게 당신을 어루만지셨습니까? 이 두주간 동안 당신은 어떻게 은총을 입었습니까?

스물 여섯: 있는 그대로 사랑 받음

다음 성서구절의 도움으로, 당신이 가장 어두운 시간에 처해 있을 때조차도 당신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는 은총을 청하십시오.

- * 이사야 43:1-5 (너는 내게 소중하다)
- * 에제키엘 36:25-32 (나는 네게 새 마음을 주리라)
- * 루가 7:36-50 (우리의 죄는 용서 받았다)
- * 루가 15 (하느님은 죄인을 사랑하신다)
- * 2 고린토 12:8-9 (너는 내 은총을 충분히 받았다)

당신이 사랑하면서도 깊은 상처를 주었던 사람에게서 온전히 용서받는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후회, 혼돈, 슬픔, 당혹스러움이 깊어지고, 당신은 이 친구와 얼굴을 마주 대하기를 두려워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일이 일어나면, 당신은 용서를 받게 됩니다. 설명하고 사과하려는 당신의 모든 시도들이 한 쪽으로 밀려나고, 다시 함께 할 수 있다는 기쁨만이 자리잡습니다. 그것은 탕자의 이야기입니다. 변명이나 설명이나 사과를 필요치 않습니다. 그것은 자식이 돌아왔을 때의 온전한 사랑과 기쁨입니다. 그러한 체험은 충격적이어서 결코 잊혀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식도 영원히 변할 것입니다.

저자가 아는 한 어머니가 자기 딸의 생명을 앗아간 사위를 용서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그 여인은 감옥에 있는 사위에게 "이 일로 자네의 인생을 망치지 말게. 자네는 아직 젊네. 나는 자네가 그럴 생각이 없었다는 것을 아네. 자네가 엄청나게 화가 나 있었을 것일세"라고 쓴 편지를 보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용서하시는 사랑을 요약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은 최악의 시기에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비유들입니다. 그 사랑은 비현실적인 것 같고 사실이기에게는 너무나 과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은 우리가 이 수련에서 믿도록 요구받는 것이며, 완전한 무관심과 거부들을 당하는 위치에서 무조건적으로 용서받고 받아들여진다는 체험을 할 때만 우리는 이것이 의미하는 것을 어렵듯이 깨닫기 시작할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것이 우리 하느님이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아들어야 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됩니다.

기독교에
관심속에서

하느님에게 벌써 안기고 그러한 무조건적 사랑을 아는 것은 엄청난 체험입니다. 특히 우리가 상처받기 쉽고 약하게 느껴질 때와 우리 자신을 사랑하지 않았을 때 그러한 무조건적 사랑은 거의 압도적인 것 같습니다. 무조건적 사랑은 사랑으로 채워진 마음으로 하느님께 응답하기를 원하도록 이끍니다.

그러나 때로 우리는 바오로 사도와 함께 "내가 해야겠다고 생각하는 일은 하지 않고 도리어 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로마서 9:15)는 말을 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는 하느님께 응답하고 싶어하는 갈망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 안에는 그 사랑을 주저하고 우리 마음대로 하고 싶어하는 갈망도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이나 하느님의 창조물을 우리 삶에 있어서 중심으로 할 때도 있으며, 다른 사람들의 존엄성과 자유를 박탈하는 사회 구조를 참아 견딜 때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우리는 하느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균형을 잃게 됩니다. 이것이 성서적인 죄의 개념입니다.

그리고 하느님께서도 이 안에서조차도 여전히 우리를 계속해서 사랑하십니다. 사실, 우리의 사랑이 부족하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는 것은 하느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데서만 있습니다. 죄는 미묘한 것입니다. 빛이 그림자를 밝히 보여주는 것처럼 죄는 우리에게 드러나야만 합니다. 우리는 자신의 어두움에 눈이 멀어 있습니다. 먼저 사랑 받는다는 것을 체험한 후에야 우리의 사랑이 부족하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사랑을 알지 못하였다면 우리는 사랑이 부재(不在)할 때도 알아차리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심으로써 우리의 어두운 면을 드러내 주시는 분도 하느님이십니다. 강조점은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느냐 하는 것입니다. 복음서의 기쁜 소식은 우리가 사랑 받을 자격이 없다고 할지라도 하느님께서 아무튼 있는 그대로의 우리를 온전히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로부터 도망가거나 숨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역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느님의 사랑에 힘입어 우리의 죽음, 상처, 소외, 슬픔, 두려움, 자기혐오 속으로 내려옴으로써 거기에 새로운 영감과 치유와 생명이 생깁니다. 이 두 흐름이 교차되는 지점은 대단한 아픔입니다. 중독증을 나타낼 때 쓰는 용어를 빌리면 "가장 밑바닥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갈등의 아픔에서부터 새로 시작할 수 있는 힘이 생겨납니다. 죽음과 재생의 순환을 다시 살게 됩니다. 우리는 하느님의 사랑이라는 은총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의 부서짐을 받아들이면서 우리의 자유와 힘을 발견하는 것을 배웁니다.

우리의 실패가 우리의 적일 필요도 없고, 그것이 우리를 통제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의 실패는 신앙 안에서 은총의 지점들이 됩니다. 하느님의 힘과 용서하는 사랑이 드러나는 것은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입니다. "너는 이미 내 은총을 충분히 받았다. 내 권능은 약한 자 안에서 완전히 드러난다.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의 권능이 내게 머무르도록 하려고 더 없이 기쁜 마음으로 나의 약점을 자랑하려고 합니다"(2 고린토 12:9)라고 사도 바오로가 고린토 인들에게 편지를 쓸 때 한 말이 얼마나 진실인가를 가장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가장 어려운 역경에 처해 있을 때입니다. 부활이 갈바리아에서 일어납니다.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우리는 새로운 방식으로 알게 됩니다.
하느님의 무조건적 사랑이 다시 한 번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성찰:

- 1) 당신을 향한 하느님의 엄청난 사랑의 신비가 당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다가가는데 있어서 어떻게 드러났습니까?
- 2) 당신 삶의 어디에서 당신은 사랑하지 않고 있습니까? 당신은 사회악의 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습니까?
- 3) 죄에 대한 체험이 당신에게 무기력감이나 아니면 신앙을 가져다 주었습니까?
- 4) 위의 성서 구절을 이용하여 당신이 어두운 시간에 처했을 때조차도 당신을 위한 하느님의 사랑을 알 수 있는 은총을 청하십시오.

활동: "성령" 혹은 "예수님, 저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혹은 당신 자신이 선택한 한 단어나 구절과 같이 기도로서 자주 반복되는 단어나 짧은 구절인 만트라를 하십시오.

받은 은총: 이 수련에서 당신이 청한 은총을 받았습니까? 어떤 은총을 받았습니까?

스물 일곱: 그리스도와 의 긴밀한 일치

이 수련에 주어진 성서구절의 도움으로, 예수님의 생활양식을 이해하고 그러한 삶의 양식을 갈망하도록 기도하십시오.

그리스도와 친밀한 관계를 지닌다는 것은 초대이며 도전입니다. 우리는 보통 이러한 맥락 안에서 그리스도를 생각하거나 그리스도와 관계 짓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그리스도께서는 멀고 손이 미치지 않는데 계시는 것 같습니다. CLC 총칙의 6 항은 이러한 긴밀한 일치에로의 초대를 더욱 가능한 것처럼 만듭니다.

그리스도와 의 일치 는 지금 여기에서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구원 사명을 계속하시는 곳인 교회와 의 일치로 이끈다. 우리는 시대의 표징과 성령의 움직임에 민감해짐으로써 모든 사람과 모든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를 더 잘 만날 수 있을 것이다 (정관 6 항).

그리스도께서는 과거에 사신 분 이상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지금 우리 가운데 살아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리스도를 만난다는 것은 2000 년이라는 간격에 다리를 놓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옆에 있는 사람 안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께 다가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다른 사람들을 통하여 당신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결국 그리스도께서는 다른 사람들을 우리에게 계시하십니다. 누군가를 보고 사랑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를 보고 사랑합니다. 복음서에 있는 예수님을 보고 사랑하게 될 때, 우리는 우리 주변의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의 순환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사랑과 서로에 대한 우리의 사랑이 갈아질 때까지 나선형처럼 깊어지는 이 순환은 끊임없이 우리를 이 진리로 더 깊이 이끕니다. 이것은 실재적이며, 살이요 피이며, 친밀하며, 성찬이며, 모든 것 안에서 하느님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보다 현실성을 띠심에 따라,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는 더 위압적이며 도전적이라는 것을 발견합니다. 예를 들어, 예수님께서서는 우리가 저항하는 방식 안에서 우리를 부르시거나 우리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는 사목으로 부르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우리가 하고 싶어 하는 특별한 사목으로 우리를 초대하시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 수난에 함께 있고자 하는 우리의 기도를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용서할 준비가 되어있지 않을 때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를 용서하라고 부르실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과 성숙한 관계를 발전시키는 은총은 이러한 상황들이 그분께 대한 우리의 사랑을 위태로운 지경에 빠뜨리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친밀하게 사랑하는 것을 희망한다는 것이 너무 지나쳐 보일지도 모릅니다. 친근함이란 강렬한 느낌이 연관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형제요 구세주로 깊이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느낌이 시시하고 따분한 것 같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좋습니다. 예수님과 친밀한 일치는 우리가 어쩌다 한번 얼마나 강렬하게 느끼느냐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분과의 일치를 입증하는 그분께 대한 무조건적인 신뢰와 투신입니다. 예수님과 일치하고자 하는 원의조차도 사실은 이미 우리가 지니고 있는 일치를 나타냅니다. 그것은 예수님과 일치해 이루어지고 예수님에 대한 사랑의 만남이 더 실재적이 되는 지속적이며 오르락내리락하는 우리의 삶의 체험 속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하실 때만 우리는 예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은총을 위해서 기도하며,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복음서의 이야기 속에 있는 그분을 관상합니다. 복음서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시는 특별한 작품들입니다. 다음 성서구절은 예수님을 알게 되는데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 * 마르코 8:29 (예수께서 "너는 내가 누구하고 생각하느냐?"하고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 * 마태오 5:3 (진복 팔단)
- * 마태오 5:24 (제단에 재물을 남겨두고, 먼저 네 형제 자매와 화해하십시오)
- * 마태오 5:44 (원수를 사랑하십시오)
- * 마태오 6:14 (너희가 남을 용서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실 것입니다)
- * 요한 13:14 (내가 너희의 발을 씻어 주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어야 합니다)
- * 루가 18:16 (어린이들이 내게 오게 오는 것을 막지 마십시오)
- * 루가 23:34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들은 자기가 하는 일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 * 요한 20:16 (마리아야!)
- * 1 고린토 13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사랑은 친절합니다...)

기도:

* 모든 애착에서 벗어나고 재능, 소유물, 성취한 것들을 그리스도를 위해 봉사하기 위해 내어놓을 수 있도록 마리아께 당신을 위해 중재해 주시도록 청하십시오. 예수님의 모범을 끝까지 따를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그것이 하느님께서 당신에게 원하시는 것이라면 당신도 그리스도처럼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을 위해서 가난과 개인적인 모욕을 견딜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지니도록 기도하십시오. 성모송을 바치십시오.

* 성모님과 더불어, 당신을 위해서 이 은총을 성부께로부터 얻어 주시도록 예수님께 청하십시오.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혼이라는 기도를 바치십시오.

* 예수님과 성모님의 현존 안에서, 그분들에 의해 봉헌되는 당신의 기도와 함께, 그리스도와 온전히 일치될 수 있는 같은 은총을 청하면서 예수님의 아버지께 다가가십시오. 주님의 기도를 바치십시오.

성찰:

1) 다른 사람들에 대한 당신의 사랑과 그리스도에 대한 당신의 사랑이 어떻게 서로 영향을 미쳤습니까?

2)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삶에 드러납니까? 당신의 어떤 감정과 태도가 그리스도와 같으며 어떤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3) 당신을 죽음의 세력에서 해방시켜주시는 예수님을 어떻게 체험하였습니까?

4) 이 장에 주어진 성서구절을 사용하여, 예수님의 생활양식을 이해하고 갈망토록 기도하십시오.

상징: 두 가지 상징을 발견하십시오. 하나는 지금 현재 당신과 예수님의 관계를 나타내는 상징과 다른 하나는 당신이 바라는 예수님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상징인 두 가지 상징을 찾아보십시오. 두 가지를 같이 놓고, 예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다른 이 관계들이 하나가 되게 하십시오.

받은 은총: 이 기간동안 받은 은총이 무엇입니까? 도전하는 것입니까? 놀라게 하는 것입니까? 위로하는 것입니까?

스물 여덟: 하느님의 무조건적 사랑에 대한 공동체 성찰

다음 성서구절의 도움으로, 당신이 예수님의 구원사명을 함께 할 수 있기 위하여 예수님을 보다 더 알고 사랑하는 은총을 청하십시오.

- * 신명기 7:7-9 (주님께서 당신의 마음을 여러분에게 두셨습니다)
- * 이사야 54:5-10 (나의 사랑은 결코 당신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 * 호세아 11:1-11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 * 예레미야 29:11-15 (나는 당신을 위한 계획을 마음에 품고 있습니다)
- * 에페소 1:3-6 (모든 축복이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모임 24 에서 27 은 하느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과 관계가 있었습니다: 하느님의 무조건적 사랑, 영적자유, 있는 그대로 사랑 받음, 그리스도와 친밀한 일치. "그리스도인 생활공동체에서 영적성장을 위한 수련"의 제 1 권을 마치면서, 개인으로서 또 공동체로서 CLC 시작 이래 당신의 삶과 성장에 대하여 성찰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다음 질문들은 이것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 * 이 시기 동안 나는 하느님의 현존을 어떻게 체험하였습니까?
- * 우리에게 대한 하느님의 사랑이라는 제 4 부에서 어느 수련이 나에게 특별히 감명을 주었습니까?
- * 이러한 체험이 다음의 경우에 있어서 어떻게 나에게 영향을 미쳤습니까?
- * 다른 사람에 대한 나의 봉사에 있어서
- * 그리스도를 더 알고 따르고자 하는 나의 원의에 있어서
- * 내 주변의 사람들과 이 공동체에 대한 나의 투신에 있어서
- * 이 그룹에서 나는 어떠한 성장을 보았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명을 살고자 하는 그룹의 노력 안에서입니까?
- * 공동체의 성장과 사목에 있어서 이 공동체는 어디로 불림을 받고 있습니까?
- * 이 공동체가 논의할 필요가 있는 것이 어떤 것이라고 나는 느낍니까?
- * 그 외 다른 것이 있습니까?

성찰:

- 1) 지난 네 수련에 대한 당신의 체험과 다른 사람들의 복지를 위한 당신의 일이 서로 어떻게 영향을 미쳤습니까?
- 2) 공동체의 생활과 봉사를 기념하기 위하여 이번 모임에 일종의 파티로 끝나는 의례를 행하는 것을 고려할 수도 있습니다.
- 3) 공동체의 미래 방향에 관하여 기도하고 식별하는데 하루나 주말을 보내는 것이 공동체에 유익할 수도 있습니다.
- 4) 위에 주어진 성서구절을 사용하여, 이 공동체를 위한 하느님의 부르심을 식별할 수 있는 은총을 청하십시오.

의례: 당신에 대한 하느님의 원의인 당신의 가장 깊은 원의를 드러내도록 도와주기 위하여 공식적인 기도로 움직임을 사용하십시오.

받은 은총: 지난 네 수련동안 당신은 어떤 은총을 받았습니까? 그것들은 당신의 청한 은총입니까? 그것들이 어떻게 다릅니까? 이것이 당신에게 말해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공동체는 그리스도인 생활양식이기 때문에,

이 정관은 본문의 문자대로 해석되기보다는

복음의 정신과 사랑의 내적 법에 의하여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새겨놓으신 이 사랑의 법은

우리의 일상생활의 모든 상황 속에서 자신을 새롭게 표현한다.

성령의 영감을 받은 이 사랑은 개인의 성소의 유일성을 존중하며,

우리가 하느님의 처분에 항상 자유롭게 개방되어 있도록 해준다.

그것은 우리의 책임을 보도록 도전하며,

진보와 평화, 정의와 사랑, 인간의 자유와 존엄성을 추구하는

모든 선의의 사람과 모든 하느님의 백성과 더불어

일하기 위해 현시대의 필요에 끊임없이 응답하게끔 도전한다.

(정관 2 항. 부록 3 참조)

부록 4

스물 아홉: 앞을 내다보는 것처럼 뒤를 바라봄: 전이의 시기동안의 수련

다음 성서구절의 도움으로, 하느님과 친밀성이 성장할 수 있는 은총을 청하십시오.

- * 아가서 2:10 (나의 사랑하는 이여, 오십시오)
- * 1 사무엘 3:1-10 (말씀하십시오. 당신 종이 듣고 있습니다)
- * 이사야 55:1-6 (하느님께서 나를 사랑하십니다)
- * 예레미야 29:11-15 (나는 너희를 위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 루가 15:11-32 (탕자)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도록 우리 자신을 개방할 때, 관점들이 변화합니다. 우리가 기도가 관계의 문제라는 것을 더욱 분명하게 깨닫습니다. 더 좋아지겠다는 결심이나 문제에 대답이 아니라 친밀성이 근본 문제입니다. 많은 문제들과 도전들은 대답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될 때 우리는 그것들을 더욱 평화롭고 즐겁게 대면하고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슬픔과 화를 하느님께 뱉어내 놓고 우리에게 친근하게 다가오시는 하느님의 현존을 체험하였다면 고통을 더욱 잘 참아 견딜 수가 있습니다. 의지력만으로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성취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하느님만이 주실 수 있는 선물입니다.

이 과정에서 자유가 가장 중요합니다. 아무도 하느님과 친근성 속으로 떠밀려 갈 수는 없습니다. 하느님께서는 당신 자신의 방식으로 우리에게 자신을 자유롭게 주십니다. 우리 모두는 구원의 은총을 약속 받았습니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수난에 들어가고자 하는 원의나 특별한 사목이나 성소 생활의 은총과 같이 우리가 바라는 모든 은총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자유는 하느님을 우리가 보고 행하는 틀 속으로 억지로 집어넣으려는 노력 없이 하느님의 방식에 개방되는 것입니다. 하느님께서는 까다로운 요구나 어리석은 복종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발적인 사랑을 원하십니다.

하느님과 맺는 우리의 관계는 이러한 상호관계의 방식 안에 있는 기도를 바라볼 때 더욱 성숙한 향기를 띠게 됩니다.

우리는 아이가 사탕을 달라는 것처럼 은총을 청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쪽에서 상대적인 성숙에 필요한 친근성을 청하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당신은 CLC 에서 새로운 국면을 시작하려 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과거에 만난 같은 하느님을 다시 만나실 것입니다. 사랑 받는 이로서 더 가까이 오도록 당신을 초대하시는 분은 같은 하느님이십니다. 하느님께서 생명을 당신과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당신께서 뒤를 되돌아보고 하느님께서 얼마나 당신과 당신 공동체 안에 계셨는가를 기억함에 따라, 당신은 하느님께서 미래에 당신과 함께 있기를 얼마나 원하시는 가를 알도록 개방될 것입니다.

성찰:

- 1) 다른 사람을 위한 당신의 삶과 CLC 의 과거 국면에 대한 당신의 체험이 어떻게 서로 영향을 미쳤습니까?
- 2) 앞을 내다보면서, 하느님과 이 공동체와 맺고 있는 당신의 관계에 관하여 당신은 어떤 깊은 희망과 갈망을 지니고 있습니까? 당신의 두려움과 장애물은 무엇입니까?
- 3) 위에 주어진 성서구절이나 당신이 선택한 성서구절을 사용하여, 자유와 신뢰 속에 서 당신을 돌보시는 하느님의 친근한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은총을 청하십시오.
- 4) 다음 모임의 신앙나누기는 이 수련에 대한 당신의 체험에서 나올 것입니다.

의례 활동: 당신의 CLC 체험에 대한 과거 단계 안에서 당신이 받았던 은총을 상징하는 꽃이나 예술품을 찾아보십시오. 다음 두 주간동안 자주 그것과 시간을 보내십시오.

받은 은총: CLC 공동체 회원으로서 당신이 이 시기동안 어떤 방식으로 영적으로 성장하였습니까? 당신은 어떻게 하느님으로부터 은총을 입었습니까?